

삿포로에서 힐링(Healing)을

안녕하세요! 삿포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원 윤소영입니다. 드디어 삿포로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눈이 많아 630m 나 내렸고, 한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날이 연일 이어져 ‘유키야마’(도로변의 사람 키 높이로 쌓인 눈더미를 일컫는 말. 삿포로의 겨울 거리 진풍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가 녹지 않고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었는데 4월에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삿포로는 ‘눈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저는 라일락 향기가 그윽한 오도리공원(삿포로시 중심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명물 먹거리 ‘옥수수’를 베어먹을 수 있는 ‘삿포로의 봄’도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힐링(Healing)’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힐링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캠핑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사이클링, 아로마테라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떨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푸른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마음을 달래는 것을 좋아해, 도시이면서도 자연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삿포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힐링장소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루야마(丸山)’ 구역을 소개합니다.



마루야마는 삿포로시 중심부로부터 서쪽 방향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도시 옆 이면서도 보기 드물게 풍부한 자연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해발 225m 의 낮고 간편하게 오를 수 있는 산으로, 삿포로 시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소풍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원시림 속을 트레킹(Trekking)해서 정상에 오르면 삿포로 시가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낮은 산이긴 하나 40 분 정도 오르기 때문에 기분 좋은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니기리(일본식 삼각김밥)’를 꼭 한번 정상에서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 점심시간에 먹는 오니기리의 맛과는 전혀 다른 소박하면서도 감칠맛이 납니다.



마루야마 원시림은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귀중한 동물, 새, 나무, 꽃과 만날 수 있는 대자연의 보고



마루야마는 가벼운 산행뿐만 아니라, 마루야마 공원, 마루야마 동물원, 홋카이도 신궁과도 인접해 있어 여러 방면에서 즐길 거리로 가득합니다. 예쁘고 세련된 카페도 많이 숨겨져 있어 카페 탐방 놀이가 취미인 저에게 있어 마루야마는 더할 나위 없는 그야말로 힐링장소입니다!

가벼운 운동, 천천히 걸기, 카페에서 차 한잔 등등, 무엇이든지 가능한 마법의 힐링장소 · 마루야마에 꼭 한 번 가보세요.

마루야마의 자세한 등산로는 이곳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2.wagamachi-guide.com/saporo_koen/apps/list.asp?mode=2&ID=1600007#Photo

